

국 어

해설위원: 정 채 영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1.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균방** 비가 올 것처럼 하늘이 어둡다.
할머니는 **방균** 전에 난 소리에 깜짝 놀라셨다.
- ② 그는 **근본**이 미천하여 남들의 업신여김을 받았다.
자발적 참여자를 **근간**으로 하여 조직이 결성되었다.
- ③ 친구들에게 그는 완전히 **타락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그는 역모 사건에 휘말려 **몰락한** 집안의 자손이었다.
- ④ 비가 올 때에는 순회공연을 **지연하기로** 하였다.
시험 시작 날짜가 9월 5일에서 9월 7일로 **연장되었다**.

정답 ④
[해설] 지연(×) ⇨ 취소(○) / 연장(×) ⇨ 연기(○): 문맥을 고려하였을 때 “비가 올 때에는 순회공연을 지연하기로 하였다.”에는 ‘지연’이 아닌 ‘취소(取消)’가, “시험 시작 날짜가 9월 5일에서 9월 7일로 연장되었다.”에는 ‘연장’이 아닌 ‘연기(延期)’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지연(遲延)’은 “무슨 일을 더디게 끌어 시간을 늦춤. 또는 시간이 늦추어짐.”의 뜻인데, 첫 번째 문장에서는 비가 올 경우 공연을 그만두는 것이므로, “발표한 의사를 거두어들이거나 예정된 일을 없애 버림.”의 뜻을 가진 ‘취소(取消)’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연장(延長)’은 “시간이나 거리 따위를 본래보다 길게 늘림.”의 뜻으로 ‘생명의 연장’이나 ‘버스 노선 연장’ 따위에 쓸 수 있는데, 두 번째 문장은 시험 기간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해진 기한을 뒤로 물러서 늘린다는 뜻의 ‘연기(延期)’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연구]
 ① ‘금방’과 ‘방금’은 같은 뜻을 가진 어휘로, 부사와 명사 두 가지 품사로 통용된다. 또한 ‘금방’과 ‘방금’은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바로 조금 전’, ‘말하고 있는 시점과 같은 때’, ‘말하고 있는 시점부터 바로 조금 후의 세 가지 경우에 모두 쓸 수 있다. 첫 번째 문장은 “말하고 있는 시점과 같은 때에.”의 의미로 부사로 쓰인 경우이고, 두 번째 문장은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바로 조금 전”의 의미로 명사로 쓰인 경우이다. 두 어휘 모두 바르게 쓰였다.
 ② ‘근본(根本)’은 “자라 온 환경이나 혈통.”의 뜻으로, ‘근간(根幹)’은 “사물의 바탕이나 중심이 되는 중요한 것.”의 뜻으로, 문맥상 모두 바르게 쓰였다.
 ③ ‘타락(墮落)’하다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다.”라는 뜻으로, ‘몰락(沒落)’하다는 “재물이나 세력 따위가 쇠하여 보잘것없어지다/멸망하여 모조리 없어지다”는 뜻으로, 문맥상 모두 바르게 쓰였다.

문 2.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물어도 보았다.
- ② 매일같이 지각하던 김 선생이 직장을 그만두었다.
- ③ 이번 시험에서 우리 중 안 되어도 세 명은 합격할 듯하다.
- ④ 지난주에 발생한 사고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회의를 했다.

정답 ③
[해설] 안 되어도(×) ⇨ 안되어도(○): ‘안 되다’는 ‘되다’의 부정 표현으로 ‘되지 않다’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고, ‘안되다’는 동사, 형용사로 쓰이는 말이다. 이 문장에서 ‘안 되어도’는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는 뜻의 동사로 쓰인 경우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안되어도’ 대신 부사 ‘적어도’를 넣어도 문맥이 통하므로, ‘되다’의 부정형 ‘안 되다’와 구별이 가능하다.
[오답연구]
 ① “무엇을 밝히거나 알아내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묻다.”라는 뜻의 ‘물어보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하지만, 중간에 조사가 개입되는 경우에는 붙여 쓰지 않으므로 “물어도 보았다”처럼 띄어 쓴 것은 적절하다.
 ② 때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하는 격 조사 ‘같이’는 체언 뒤에 붙여 써야 하므로 ‘매일같이’로 쓴 것은 적절하다.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라는 띄어쓰기 원칙에 따라 ‘김 선생’으로 띄어 쓴 것은 적절하다. “하던 일을 그치고 안 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그만두다’는 한 단어이므로, 이를 붙여 쓴 것은 적절하다.
 ④ “이 주의 바로 앞의 주”라는 뜻을 가진 ‘지난주’는 붙여 쓴다. 본용언 ‘해결하다’와 보조 용언 ‘하다’는 띄어 쓰고, 보조 용언 ‘하다’와 연결 어미 ‘-르자’는 붙여 쓰므로, ‘해결해야 할자’로 쓴 것은 적절하다. ‘하다’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어야 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거나 앞말이 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말”로, 보조 동사이다. 따라서 ‘해결해야 하다’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한편, 붙여 쓰여 허용되는 보조 용언은 (1) ‘-아/-어’ 뒤에 연결되는 보조 용언(알아 둔다/알아둔다), (2) 의존 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붙어서 된 보조 용언이다(모르는 체한다/모르는 체한다).

■ 참고 - <안되다의 용법>
1. ‘동사’ 안되다
 「1.일,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
 예)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과일 농사가 안돼 큰일이다./공부가 안돼서 잠깐 쉬고 있다.
 「2.사람이 훌륭하게 되지 못하다.
 예) 자식이 안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
 「3.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
 예) 이번 시험에서 우리 중 안되어도 세 명은 합격할 것 같다.
2. ‘형용사’ 안되다
 「1.섭섭하거나 가엾어 마음이 언짢다.
 예) 그것참, 안됐군./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고생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안됐다.
 「2.근심이나 병 따위로 얼굴이 많이 상하다.
 예) 몸살을 앓더니 얼굴이 많이 안됐구나./안색이 안돼 보여서 보약을 지어 보냈다.

문 3. 높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ㄱ. 할아버지께서 노인정에 가셨습니다.
 - ㄴ. 선생님께서는 휴일에는 덕에 계십니다.
 - ㄷ. 여러분, 아이들을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
 - ㄹ. 우리는 할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다녀왔다.
- ① ㄱ, ㄴ: 문장의 주체를 높이고 있다.
 ② ㄱ, ㄴ, ㄷ: 듣는 이를 높이고 있다.
 ③ ㄴ, ㄹ: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여 높임을 표현하고 있다.
 ④ ㄷ, ㄹ: 목적어를 높이고 있으므로 객체를 높이는 표현이다.

정답 ④
[해설] ㄷ의 목적어는 ‘아이들’인데, 이 문장에서는 목적어인 ‘아이들’을 높이지 않았다. ㄷ에서는 ‘주십시오’에 나타나 있듯이 듣는 이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 실현되었다. ㄹ은 목적어 ‘할머니를’을 ‘모시고’를 사용하여 높이고 있으므로, 이는 객체 높임법이 실현된 문장에 해당한다.
[오답연구]
 ① ㄱ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하여 주격 조사 ‘께서’와 높임 선어말 어미 ‘-사’를 사용하였다. ㄴ은 문장의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하여 주격 조사 ‘께서’와 간접 높임에 쓰이는 어휘 ‘덕’, 직접 높임에 쓰이는 어휘 ‘계시다’를 사용하였다.
 ② ㄱ의 ‘가셨습니다’, ㄴ의 ‘계십니다’, ㄷ의 ‘주십시오’는 상대방을 아주 높이는 종결형 ‘합쇼체’가 사용된 어휘이다. ㄱ, ㄴ, ㄷ 모두 상대 높임법을 사용하여 듣는 이를 높이고 있다.
 ③ ㄴ의 ‘계십니다’와 ㄹ의 ‘모시고’는 각각 주체와 객체를 높이는 특수한 어휘에 해당한다.

■ 참고 - <높임법>
 높임법이란 말하는 이가 듣는 이나 다른 대상을 높이거나 낮추는 정도를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체계나 방식을 말한다. 국어의 높임법은 대우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상대 높임법,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나눌 수 있다.

높임법의 종류	높임의 대상	높임의 실현 방법
상대 높임법	회자의 말을 듣는 상대	• 종결 어미
주체 높임법	서술어의 주체 <small>주어가 가리키는 대상</small>	• ‘께서, -(으)시-’ 등 • ‘계시다, 갑시다’ 등
객체 높임법	서술어의 객체 <small>동작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small>	• ‘께’ • ‘모시다, 드리다, 뵙다’ 등

문 4.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같은 것은?

- ① 모두 제 **잘못**입니다.
심판은 규칙을 **잘못** 적용하여 비난을 받았다.
- ② 집에 도착하는 **대로** 편지를 쓰다.
큰 것은 큰 것**대로** 따로 모아 두다.
- ③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 곳에 사무실이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 ④ **이** 사과가 맛있게 생겼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정답 ③

[해설] 접미사 '-적'이 붙은 말은 뒤에 조사가 오면 명사이고(-적+조사), 뒤의 용언을 꾸며 주면 부사이며(-적+용언), 뒤의 체언을 꾸며 주면 관형사이다(-적+체언). 첫 번째 문장 "비교적 ~ 편리한"과 두 번째 문장 "비교적 ~ 낮은"에서 알 수 있듯이 접미사 '-적'이 뒤에 오는 '편리한'과 '낮다'라는 용언을 꾸며 주므로, 품사는 둘 다 부사에 해당한다.

[오답연구]

- ① 첫 번째 문장에서 '잘못' 뒤에 서술격 조사 '이다'의 활용형인 '입니다'가 왔으므로, 이 경우 '잘못'은 명사에 해당한다. 두 번째 문장에서 '잘못'이 뒤의 용언 '적용하여'를 수식하였으므로, 이 경우 '잘못'은 부사에 해당한다.
- ② '대로'가 용언의 관형사형 다음에 띄어 쓰이면 의존 명사이고, 체언 다음에 붙어 쓰이면 조사이다. 첫 번째 문장에서 '도착하는'은 용언의 관형사형이므로, 이 경우 '대로'는 '의존 명사'에 해당한다. 두 번째 문장에서 '것'은 의존 명사이므로, 이 경우 '대로'는 '조사'에 해당한다.
- ④ '이'에 조사가 붙지 않고 뒤의 체언을 꾸며 주면 관형사, '이'에 조사가 붙으면 대명사이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뒤의 '사과'를 꾸며 주므로 이 경우의 '이'는 '관형사'이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보다'라는 조사가 붙어 있으므로 이 경우의 '이'는 '대명사'이다.

문 5. 밑줄 친 한자 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이번 실패에 굴하지 않고 **捲土重來**를 꿈꾸고 있다.
- ② 그는 **魚魯不辨**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③ 그는 이번 사건에 **吾不關焉**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④ 그의 말이 **羊頭狗肉**으로 평가받는 것은 걸만 그럴듯해서이다.

정답 ②

[해설] '어루불변(魚魯不辨)'은 어(魚) 자와 노(魯) 자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주 무식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 문장에서 '그'는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므로, 무식하다는 뜻의 '어루불변(魚魯不辨)'을 쓰는 것은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

[오답연구]

- ① 권토중래(捲土重來): '1. 땅을 말아 일으킬 것 같은 기세로 다시 온다는 뜻으로, 한 번 실패하였으나 힘을 회복하여 다시 쳐들어움을 이르는 말. 중국 당나라 두목의 <오강경시(烏江亭詩)>에 나오는 말로, 항우가 유방과의 결전에서 패하여 오강(烏江) 근처에서 자결한 것을 탄식한 말에서 유래한다. '2. 어떤 일에 실패한 뒤에 힘을 가다듬어 다시 그 일에 착수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 ③ 오불관연(吾不關焉): 나는 그 일에 상관하지 아니함
- ④ 양두구육(羊頭狗肉):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보기만 그럴듯하게 보이고 속은 변변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

문 6.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이때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짐작이 괴로운 것들. 그렇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념해 버린 것이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난을 가꾸면서는 산철에도 나그네길을 떠나지 못한 채 꼼짝을 못 했다. 밖에 불일이 있어 잠시 방을 비울 때면 환기가 되도록 들창문을 열어 놓아야 했고, 분(盆)을 내놓은 채 나가다가 뒤미처 생각하고는 되돌아와 들여놓고 나간 적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우리들의 소유 관념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한다. 그래서 자기의 분수까지도 돌볼 새 없이 들뜬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 이 육신마저 버리고 홀홀히 떠나갈 것이다. 하고많은 물량일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건으로 인

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번쯤 생각해 볼 말씀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역리(逆理)이니까.

- ① 역설과 예시를 사용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논증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③ 난초를 의인화하여 소유의 가치를 깨우치고 있다.
- ④ 단호한 어조로 독자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정답 ①

[해설] 역설과 예시를 사용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과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에서 '역설'의 근거를 찾을 수 있고, "나는 이때 온몸으로, ~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념해 버린 것이다."에서 '난초를 길렀던 일을 예시의 근거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역설과 예시를 통해 '소유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연구]

- ② 제시문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논증을 뒷받침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 ③ 난초를 통해 '소유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소유의 가치'에 대해 말하지는 않았다. 또한 난초를 의인화하지도 않았다.
- ④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깨달은 것을 썼을 뿐, 단호한 어조를 쓴 것도, 독자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 참고 - <법정, 무소유(無所有)>

[해설] 이 글은 글쓴이의 체험을 바탕으로 '소유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는 교훈적인 수필이다. 인간의 고통과 번뇌는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며, 소유욕을 버리면 마음의 평정과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난초를 키우며 집착 때문에 괴로웠던 경험을 제시하여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무엇인가에 얽매는 것이다.'라는 깨달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주제] 진정한 자유와 무소유의 의미

[특징] 고백적인 말하기로 자신의 체험을 서술함/역설적 표현을 통해 진리를 전달함.

문 7. ㉠에 들어갈 시조로 적절한 것은?

우리말에서 공간적 개념은 흔히 시간적 개념으로 바뀌어 표현되곤 한다. 예컨대 공간 표현인 '뒤'가 시간 표현으로 '나중'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문학 작품에서 시간적 개념이 공간적 개념으로 바뀌어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그 예로 다음 시조를 보자.

㉠

- ① 어저 내 일이야 그럴 줄을 모로드냐
이시라 허더면 가라마는 제 구덕여
보내고 그리는情有 나도 몰라 허노라
- ② 靑山은 내 뜻이오 綠水는 님의情이
綠水 흘러간들 靑山이야 變호손가
綠水도 靑山을 못 니저 우리 예여 가노고
- ③ 冬至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여
春風 니불 아리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귀구귀 퍼리라
- ④ 山은 냇 山이로되 물은 냇 물이 안이로다
晝夜에 흘러니 냇 물이 이실손야
人傑도 물과 又야 가고 안이 오노미라

정답 ③

[해설] ㉠에 들어갈 시조로 적절한 것은 "冬至스들 기나긴 밤을~"이다. '밤'이라는 시간은 자를 수가 없는 것인데, 이를 잘라서 '이불 속에' 넣는다고 표현한 부분에서 추상적인 시간을 구체적인 공간적 개념으로 형상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어 풀이]
동짓달 긴긴 밤의 한가운데를 베어 내어,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속에 서리서리 넣어 두었다가,
정든 임이 오신 밤이면 굵이굵이 펼쳐 내어 그 밤이 오래오래 새지 않도록 이르리라.

[오답연구]

- ① 황진이이 시조로, 주제는 '이별의 회한과 임에 대한 그리움'이다.
[현대어 풀이]
아아, 내가 한 일이 후회스럽구나. 이렇게도 사무치게 그리워할 줄을 미처 몰랐더냐? 있오라 했더라면 임이 굳이 떠나시려 했겠느냐마는 내가 굳이 보내 놓고는 이제 와서 새삼 그리워하는 마음은 나 자신도 모르겠구나.
- ② 황진이이 시조로, 주제는 '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며, '청산'과 '녹수'의 대조를 통

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였다.

[현대어 풀이]

정산은 변함없는 나의 마음이고, 녹수는 쉽게 변하는 임의 정이다.
 녹수가 흘러가더라도 산이야 변하겠는가?
 녹수도 청산을 잊지 못해 울면서 흘러가는구나.

④ 황진이이 시조로, 주제는 '무정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인생무상'이다.

[현대어 풀이]

산은 옛날의 산 그대로인데 물은 옛날의 물이 아니구나.
 중일토록 흐르니 옛날의 물이 그대로 있겠는가.
 사람도 물과 같아서 가고 아니 오는구나.

문 8. 밑줄 친 단어의 불규칙 활용 유형이 같은 것은?

- ① 나뭇잎이 **누르니** 가을이 왔다.
 나무가 **높아 오르기** 힘들다.
- ② 목적지에 **이르기는** 아직 멀었다.
 앞으로 **구르기**를 잘한다.
- ③ 주먹을 **휘두르지** 마라.
 머리를 짧게 **자른다**.
- ④ 그를 불운한 천재라 **부른다**.
 색깔이 아주 **푸르다**.

정답 ③

[해설] 불규칙 활용 유형이 같은 것은 '휘두르다'와 '자른다'이다. '휘두르다'의 기본형은 '휘두르다'로, 어간 '휘두르-'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어'가 결합할 때, '르'가 모음 어미 앞에서 'ㄹ'로 바뀌어 '휘둘러'로 활용되므로, 이는 '르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자른다'의 기본형은 '자르다'로 '자르다'의 어간 '자르-'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어'가 결합할 때, '르'가 모음 어미 앞에서 'ㄹ'로 바뀌어 '잘라'로 활용되므로 이 역시 '르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오답연구]

- ① '누르니'의 기본형은 '누르다'이며,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누르러'로 활용되므로, 이는 '러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한편, '오르기'의 기본형은 '오르다'이며,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올라'로 활용되므로, 이는 '르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 ② '이르기는'의 기본형은 '이르다'이며,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이르러'로 활용되므로, 이는 '러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한편, '구르기'의 기본형은 '구르다'이며,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굴러'로 활용되므로, 이는 '르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 ④ '부른다'의 기본형은 '부르다'이며,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부러'로 활용되므로, 이는 '르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한편, '푸르다'의 기본형은 '푸르다'이며,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푸르러'로 활용되므로 이는 '러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문 9. 다음 글에 나타난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서양에서 주인공을 '히어로(hero)', 즉 '영웅'이라고 부른 것은 고대 서사시나 희곡의 소재가 되던 주인공들이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 신화적 세계관 속에서 영웅들은 신과 밀접한 관계를 맺거나 신의 후손이기도 하였다.

신화와 달리 문학 작품은 인물의 행위를 단일한 것으로 통일시킨다. 영웅들의 초인간적이고 신적인 행위는 차차 문학 작품의 구조에 제한되어 훨씬 인간화되었다. 문학 작품의 통일된 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대폭 수정되거나 제거되는 수밖에 없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이 '보통보다 우수한 인물'을 모방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문학의 인물이 신화의 영웅이 아닌 보통의 인간임을 지칭한 것이다. 극의 주인공은 작품의 통일성을 기하는 데 기여하는 중심적인 인물이면 된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낭만주의 및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작중 인물을 실제 인물인 양 따로 떼어 내어, 그의 개인적인 역사를 재구성해 보려고도 하였다. 그들은 영웅이라는 표현 대신 '성격(인물, character)'이라는 개념을 즐겨 썼는데, 이 용어는 지금도 비평계에서 애용되고 있다.

- ① 영웅이라는 말은 고대의 예술적 조건과 자연스럽게 관련된다.
- ② 신화의 영웅은 문학 작품에 와서 점차 인간화되었다.
- ③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보통보다 우수한 인물'은 신화적 영웅과 다르다.
- ④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작중 인물을 역사적 영웅으로 재평가하려고 했다.

정답 ④

[해설] 네 번째 문단에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작중 인물을 ~ 영웅이라는 표현 대신 '성격'이라는 개념을 즐겨 썼"다고 나와 있다. 이는 작중 인물을 '영웅'이 아닌 '성격'으로 대체했다는 것이며, "개인적인 역사를 재구성해 보려고"에 나와 있듯이 이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재평가가 아니라 '재구성'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작중 인물을 역사적 영웅으로 재평가하려고 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연구]

- ① 영웅이라는 말은 고대의 예술적 조건과 자연스럽게 관련된다는 것은 첫 번째 문단 "영웅"이라고 부른 것은 고대 서사시나 희곡의 소재가 되던 주인공들이~신과 밀접한 관계를 맺거나 신의 후손이기도 하였다."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② 신화의 영웅이 문학 작품에 와서 점차 인간화되었다는 것은 두 번째 문단 "영웅들의 초인간적이고 신적인 행위는 차차 문학 작품의 구조에 제한되어 훨씬 인간화되었다."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③ 보통보다 우수한 인물과 신화적 영웅이 다르다는 것은 세 번째 문단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이 '보통보다 우수한 인물'을 모방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문학의 인물이 신화의 영웅이 아닌 보통의 인간임을 지칭한 것이다."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문 10. ㉠~㉣에 들어갈 한자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토론은 어떤 의견이나 제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뚜렷한 의견 대립을 가지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 형태이다. 찬성자와 반대자는 각기 (㉡)를 밝히고,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며, 주장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상대방에게 인정될 수 있도록 자기의 주장을 펴 나간다. 토론에서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상대방이 인정하도록 하려면, 상대로 하여금 (㉢)의 여지를 가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토론 참가자는 (㉣)에 대한 충분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검토를 통해 자신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화법(語法)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
① 論議	論據	論駁	論題
② 論議	論制	論述	論搏
③ 論意	論旨	論難	論述
④ 論意	論志	論據	論題

정답 ①

[해설] ㉠~㉣에 들어갈 한자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論議-論據-論駁-論題'이다.

토론은 논리의 한 형태이므로 ㉠에는 '論議(논의)'가 들어가야 하고, 찬성자와 반대자가 주장을 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논거이므로 ㉡에는 '論據(논거)'가 들어가야 한다. 토론에서 자신의 주장에 상대가 반박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에는 '論駁(논박)'이 들어가야 하고, ㉣에는 충분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검토를 통해 자신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므로, 문맥상 토론의 주제를 뜻하는 '論題(논제)'가 들어가야 한다.

[오답연구]

- ① • 論議(논의): (論 논할 논, 議 의논할 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내어 토의함.
 • 論意(논의): (論 논할 논, 意 뜻 의) 논하는 말이나 글의 뜻이나 의도.
- ㉡ • 論據(논거): (論 논할 논, 據 근거할 거) 어떤 이론이나 논리, 논설 따위의 근거.
 • 論旨(논지): (論 논할 논, 旨 뜻 지) 논하는 말이나 글의 취지.
- ㉢ • 論駁(논박): (論 논할 논, 駁 논박할 박) 어떤 주장이나 견해를 논하여 잘못을 말하는 것.
 • 論難(논란): (論 논할 논, 難 어려울 난) 여럿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며 다툼.
- ㉣ • 論題(논제): (論 논할 논, 題 표제 제) 논설이나 논문, 토론 따위의 주제나 제목.
 • 論述(논술): (論 논할 논, 述 펼 설) 어떤 것에 관하여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함.

문 11.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표어로 적절한 것은?

- 공중도덕 지키기를 홍보한다.
- 대구의 표현 방식을 활용한다.
- 행위의 긍정적 효과를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 ① 신호 위반, 과속 운전 / 모든 것을 알아 감니다
- ② 아파트를 뒤흔드는 음악 소리 / 이웃들을 괴롭히는 고문 장치
- ③ 노약자에게 양보하는 한 자리 / 당신에게 찾아오는 행복의 문
- ④ 공공 장소에서 실천하는 금연 / 우리의 건강을 지켜 줍니다

정답 ③

[해설] 제시된 조건 '공중도덕 지키기, 대구, 긍정적 비유'가 모두 들어간 표어로 적절한 것은 "노약자에게 양보하는 한 자리 / 당신에게 찾아오는 행복의 문"이다. '노약자에게 양보하는 행위'는 공중도덕 지키기의 조건에 부합하고, '노약자에게~/당신에게~'는 대구의 표현 방식에 부합하며, '행복의 문'은 긍정적 효과를 비유로 표현한다는 조건에 부합한다.

[오답연구]

- ① "신호 위반, 과속 운전"은 '공중도덕 지키기'를 홍보하는 조건에는 부합하나, '대구'와 '긍정적 비유'의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 ② "아파트를 뒤쫓는 음악 소리 / 이웃들을 괴롭히는 고문 장치"는 '공중도덕 지키기'와 '대구'의 조건에는 부합하지만, '행위의 긍정적 효과가 제시되지 않는 '부정적인 비유'를 썼으므로 세 번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④ "공공 장소에서 실천하는 금연"에는 '공중도덕 지키기'의 조건에만 부합할 뿐 '대구'와 '긍정적 비유'의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정답 ①

[해설] 첫 번째 문장의 '채'는 '어떤 상태나 동작이 다 되거나 이루어졌다고 할 만한 정도에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를 이르는 말'로, 품사는 부사이다. 두 번째 문장의 '착'은 '그렇듯하게 꾸미는 거칠 태도나 모양을 이르는 말로, 품사는 의존 명사이다. 두 문장 모두 '채'와 '착'의 쓰임이 적절하다.

[오답연구]

- ② "한창은 '시간이 상당히 지나는 동안'을 뜻하고, '한창은 '어떤 일이 가장 활기 있고 왕성하게 일어나는 모양'을 뜻한다. 따라서 첫 번째 문장에는 "가을 논의 벼가 한창 무르익고 있었다."처럼 '한창'을, 두 번째 문장에는 "그는 가방을 한창 바라보더니 가 버렸다."처럼 '한참'을 쓰는 것이 바르다.
- ③ '두껍다'는 '두께가 보통의 정도보다 크다./층을 이루는 사물의 높이나 집단의 규모가 보통의 정도보다 크다.'의 뜻을 가진 형용사이고, '두텁다'는 '신의, 믿음, 관계, 인정 따위가 굳고 깊다.'는 뜻을 가진 형용사이다. 따라서 첫 번째 문장에는 "둘 사이는 친분이 두텁다."처럼 '관계가 깊다'는 뜻의 '두텁다'를, 두 번째 문장에는 "우리나라의 야구 선수층은 매우 두껍다."처럼 '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뜻의 '두껍다'를 쓰는 것이 바르다.
- ④ '벗겨지다'는 '뿔이거나 씩뿔진 물건이 외부의 힘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떨어지다.'를 뜻하는 동사이고, '벗어지다'는 '뿔이거나 씩뿔진 물건이 흘러내리거나 떨어져 나간다./머리카락이나 몸의 털 따위가 빠지다.'를 뜻하는 동사이다. 따라서 첫 번째 문장에는 "나이가 들어 머리가 많이 벗겨졌다."처럼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뜻의 '벗어지다'를, 두 번째 문장에는 "바나나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았다."처럼 외부의 힘에 의하여 떨어지다는 뜻의 '벗겨지다'를 쓰는 것이 바르다.

문 12. 다음 한글 맞춤법 제6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

- ① 예시로는 '해돋이, 같이'가 있다.
- ② 위 조항은 한글 맞춤법 총칙 중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원리를 따른 것이다.
- ③ 종속적 관계란 체언, 어근, 용언 어간 등에 조사, 접사, 어미 등이 결합하는 관계를 말한다.
- ④ '잔디, 버티다'는 하나의 형태소에서 'ㄷ, ㅌ'과 'ㅣ'가 만난 것으로서 위 조항의 예에 해당된다.

정답 ④

[해설] 구개음화는 '잔디, 버티다와 같은 하나의 형태소 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구개음화가 일어나려면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와 가 하는데, '잔디'의 '디'와 '버티다'의 '티'는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ㄷ, ㅌ'과 'ㅣ'가 결합하였을 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와 결합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 제6항의 조항에 해당한다는 것은 잘못된 진술이다.

[오답연구]

- ① '해돋이'는 '돋다'의 어간 '돋-'의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갖는 접사 '-이'가 결합한 형태이고, '같이'는 '갈다'의 어간 '갈-'에 부사 파생 접사 '-이'가 결합한 형태이다. 따라서 '해돋이, 같이'는 한글 맞춤법 제6항의 예시로 적절하다.
- ② 구개음화가 일어나더라도 소리대로 적지 않고 'ㄷ, ㅌ'으로 적는다고 했으므로, 이는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원리를 따른 것이다.
- ③ 종속적(從屬的) 관계란, 형태소 연결에 있어서 실질 형태소인 체언, 어근, 용언 어간 등에 형식 형태소인 조사, 접미사, 어미 등이 결합하는 관계를 말한다. 이 경우, 형식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에 종속되는 요소인 것이다.

■ 참고 - <구개음화(口蓋音化)>

끝소리 'ㄷ, ㅌ'이 'ㅣ'나 반모음 'ㅇ' 앞에서 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을 말한다.

- ㉠ 굴이[구지], 해돋이[해도지], 같이[가치]
- ① 자음이 모음의 성질을 닮아 변동하는 현상이다.
- ② 뒤에 오는 음이 앞의 음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역행 동화이다.
- ③ 한 형태소 내에서는나 합성어 안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 ㉡ 잔디(○) - 잔지(×), 버티다(○) - 버치다(×), 발이랑 - [반니랑](○) [바치랑](×)
- ④ 현대 국어에서는 구개음화된 것이 표준 발음이지만,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고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문 13.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모두 옳은 것은?

- ①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일어나 나갔다.
그는 여전히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앉아 있다.
- ② 가을 논의 벼가 **한참** 무르익고 있었다.
그는 가방을 **한참** 바라보더니 가 버렸다.
- ③ 둘 사이는 친분이 **두껍다**.
우리나라의 야구 선수층은 매우 **두텁다**.
- ④ 나이가 들어 머리가 많이 **벗겨졌다**.
바나나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았다.

문 14.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바다', '맑다'는 어근이 하나인 단일어이다.
- ② '회뎨밥'은 파생어 '뎨'에 새로운 어근 '회'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 ③ '결눈질'은 합성어 '결눈'에 접미사 '-질'이 결합된 파생어이다.
- ④ '웃음'은 어근 '웃-'에 접미사 '-음'이 붙어 명사가 된 파생어이다.

정답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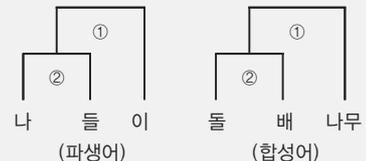
[해설] '회뎨밥'은 합성어 '뎨'에 새로운 어근 '회'가 결합된 합성어로, 최종 형태 경계는 '회-뎨'이다. '뎨'는 용언의 어간 '뎨-'이 어미가 생략된 상태에서 뒤에 오는 어근 '밥'과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이므로, '뎨'를 파생어로 설명한 것은 바르지 않다.

[오답연구]

- ① '바다', '맑다'는 어근이 하나인 단일어이므로, 이는 바른 설명이다.
- ③ 여러 말이 결합한 복합어의 경우, 최종 형태 경계를 중심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결눈질'의 최종 형태 경계는 '결눈-질'이다. '결'에 '눈질'이 붙었다고 보기보다는 '결눈'에 '-질'이 붙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구성이기 때문에 '결눈-질'로 최종 형태 경계를 삼는 것이다. 따라서 '결눈질'은 '결눈'이 먼저 결합하고, 그 후에 접사 '-질'이 결합한 것이므로, 파생어로 분류할 수 있다.
- ④ '웃음'은 어근 '웃-'에 명사화 접미사 '-음'이 붙어 만들어진 파생 명사이므로, '웃음'을 파생어라고 한 것은 바른 설명이다.

■ 참고 - <직접 구성 성분(IC: Immediate Constituent)>

단어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3개 이상일 때는 그 단어의 직접 구성 성분으로 단어의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직접 구성 성분이란 한 단어를 일차적으로 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지는 두 성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나들이'의 직접 구성 성분은 '나들'과 '이'이고, '돌베어나무'의 직접 구성 성분은 '돌베'와 '나무'이다. '나들이'는 어근 '나-'에 어근 '들-'이 붙어 합성어 '나들다'를 만들고, 이 말에 다시 접미사 '-이'가 붙어 '나들이'라는 파생어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돌베어나무'는 '돌-'이라는 접두사에 어근 '배'가 붙어 파생어 '돌베'가 만들어지고, 어근 '돌베'와 어근 '나무'가 결합하여 '돌베어나무'라는 합성어를 만들어 낸다. 이처럼 어떤 단어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는 직접 구성 성분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 단어를 일차적으로 둘로 나누었을 때, '돌베어나무'처럼 그 각각의 성분이 어근과 어근이라면 합성어이고, '나들이'처럼 어근과 접사라면 파생어이다.



문 15. 다음 글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게 될 지역 주민들도 그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 그리고 그런 시설이 자기 고향에 들어서는 것을 받아들이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 ㉡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내 고향에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는 ㉢ 지역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뒤로 미루면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 나와 내 이웃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 ① ㉠은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그러나’로 바꾼다.
- ② ㉡은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이므로 문단의 통일성을 위해 삭제한다.
- ③ ㉢은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으로 ‘지역 이기주의이다’로 순화한다.
- ④ ㉣은 주어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다르다 고친다.

정답 ②

[해설] 이 글의 주제는 ‘지역 이기주의의 타파’이다. ㉡에 제시된 “내 고향에는 안 된다”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연구]

- ① ㉠의 앞 문장에는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가, ㉠의 뒤 문장에는 “받아들이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가 있으므로, ‘인정하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은 상반된 태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을 ‘그러나’로 바꾸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다.
- ③ ㉢의 “~에 다름 아니다”는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이다. 따라서 이를 ‘지역 이기주의이다’로 순화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다.
- ④ 이 문장의 주어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이다. 따라서 ㉣을 주어와 호응할 수 있는 서술어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로 고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다.

문 16.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진에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엔 진주해 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뺨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 버리고 없었다.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恨)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女鬼)가 뺨에 내놓은 입김과 같았다.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 쪽에서 방향을 바꾸어 불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의 힘으로써는 그것을 헤쳐 버릴 수가 없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쌌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 놓았다. 안개, 무진의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안개,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그것이 무진의 명산물이 아닐 수 있을까!

- 김승옥, 「무진기행」 -

- ① 소재의 의미를 비유적 표현을 통해 드러낸다.
- ② 무진이라는 지역의 특징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 ③ ‘나’의 시선으로 전개되는 1인칭 시점의 서술이다.
- ④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한다.

정답 ④

[해설] 제시문의 서술어 “것이였다, 없었다, 같았다” 등에 과거 시제가 사용된 것은 맞지만,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에서 보듯 감정 용어 ‘간절히’가 개입된 주관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묘사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연구]

- ① 제시문의 소재인 안개를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女鬼)가 뺨에 내놓은 입김과 같았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소재의 의미를 비유적 표현을 통해 드러낸다는 것은 적절한 설명이다.
- ② “무진의 안개, 그것이 무진의 명산물이 아닐 수 있을까!”를 근거로 보아 제시문에서 무진이라는 지역의 특징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한 설명이다.
- ③ 두 번째 문장에 등장하는 ‘나’를 통해 제시문이 ‘나’의 시선으로 전개되는 1인칭 시점의 글이라는 것은 적절한 설명이다.

■ 참고 - <김승옥, 무진기행>

[해제] 이 작품은 1960년대의 허무와 회의 의식을 주인공인 ‘나’가 서울을 떠나 무진으로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떠남 - 추억의 공간 - 복귀’의 순환 구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주인공인 ‘나’(윤희중)는 고달픈 현실 속에서 재충전을 위해 무진으로 향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젊은 시절의 고뇌를 느끼는 한편, 자신의 과거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하인숙이라는 여인을 만나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 그러나 그의 의식의 다른 끝에는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이라는 현실적인 가치가 놓여 있다. 아내의 전보로 이를 깨닫게 된 ‘나’는 현실로 복귀하게 된다.

[주제] 현실 속에 던져진 자기 존재의 파악

문 17.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책 없이도 인간은 기억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표현한다. 그런데 책과 책 읽기는 인간이 이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 중대한 차이를 가져온다. 책을 읽는 문화와 책을 읽지 않는 문화는 기억, 사유, 상상, 표현의 층위에서 상당히 다른 개인들을 만들어 내고, 상당한 질적 차이를 가진 사회적 주체들을 생산한다. 누구도 맹목적인 책 예찬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을 더욱 인간적으로 하는 소중한 능력들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책은 결코 희생할 수 없는 매체라는 사실이다. 그 능력의 지속적 발전에 드는 비용은 싸지 않다. 무엇보다도 책 읽기는 손쉬운 일이 아니다. 거기에는 상당량의 정신 에너지가 투입돼야 하고, 훈련이 요구되고, 읽기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정신 습관의 형성이 필요하다.

- ① 인간의 기억과 상상
- ② 독서의 필요성과 어려움
- ③ 맹목적인 책 예찬론의 위험성
- ④ 책 읽기 능력 개발에 드는 비용

정답 ②

[해설] 이 글의 중심 내용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에 있다. “인간을 더욱 인간적으로 하는 소중한 능력들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독서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책 읽기는 손쉬운 일이 아니다.~”는 ‘독서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의 중심 내용은 ‘독서의 필요성과 어려움’이다.

[오답연구]

- ① 첫 번째 문장에서 인간은 “책 없이도 인간은 기억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표현한다.”라고 했으므로, 이는 중심 내용인 ‘독서의 필요성과 배치되는 진술이다.
- ③ 네 번째 문장에서 “맹목적인 책 예찬자가 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여 ‘맹목적인 책 예찬론에 대해 필요 없다’고 하였을 뿐 이를 ‘위험하다고 평가하지는 않았다.
- ④ 다섯 번째 문장에서 “그 능력의 지속적 발전에 드는 비용은 싸지 않다.”라고 하여 책 읽기 능력 개발에 드는 비용에 대해 언급하고는 있지만, 이는 중심 내용이 아니라 세부 정보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답이 될 수 없다.

문 18. ㉠~㉣에 들어갈 적절한 접속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역사의 연구는 개별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 자체에 대해 구명(究明)을 꾀하는 것이 역사학인 것이다. (㉡) 고구려가 한족과 투쟁한 일을 고구려라든가 한족이라든가 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빼 버리고, 단지 “자주적 대제국이 침략자와 투쟁하였다.”라고만 진술해 버리는 것은 한국사일 수가 없다. (㉢) 일정한 시대에 활약하던 특정한 인간 집단의 구체적인 활동을 서술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역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 | | | | |
|---|-------|----|-----|
| | ㉠ | ㉡ | ㉢ |
| ① | 즉 | 가령 | 요컨대 |
| ② | 가령 | 한편 | 역시 |
| ③ | 이러테면 | 역시 | 결국 |
| ④ | 다시 말해 | 만약 | 그런데 |

정답 ①

[해설] ㉠의 앞 문장에 제시된 핵심 정보는 ‘역사의 연구’이고, ㉠의 뒤 문장에 제시된 핵심 정보는 ‘역사학’이다. ‘역사의 연구’와 ‘역사학’은 동일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에는 동일한 내용을 대등하게 이어줄 때 쓰는 접속어 ‘즉’이나 ‘다시 말해’가 들어가야 한다. ㉡의 뒤 문장은 앞에서 제시한 내용을 ‘고구려’라는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에는 구체적인 예를 상정할 때 쓰는 접속어 ‘가령’이 들어가야 한다. ㉢의 뒤 문장은 지금까지 언급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이므로 ㉢에는 ‘요컨대’ 정도가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에 들어갈 접속어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즉, ㉡-가령, ㉢-요컨대가 된다.

■ 참고 - <접속어의 쓰임>

유형	내용
순접	앞뒤 문장이 편하게 이어짐. → 그리고, 그래서, 이와 같이 등 ㉠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
역접	뒤 문장이 앞 문장과 반대의 내용으로 이어짐. → 그러나, 하지만, 반면에 등 ㉠ 비평은 쉽다. 그러나 잘하기는 어렵다.
전환	뒤 문장이 앞 문장과는 다른 내용으로 이어짐. → 그런데, 한편 등 ㉠ 이 도령은 한양으로 떠났다. 한편 춘향이는……
병렬(대등)	앞뒤 문장이 대등한 관계로 연결됨. → 곧, 즉, 다시 말해 등 ㉠ 미(美)의 본질은 진(眞)이다. 즉 참다운 아름다움은 진실됨에서 우러나는 것이다.
첨가(보충)	뒤 문장이 앞 문장에 덧붙여 이어짐. → 또, 또한, 더구나, 게다가, 뿐만 아니라 등 ㉠ 흥년이 거듭되자 백성들의 삶은 곤궁해졌다. 더구나 내우외환도 그치지 않았다.
인과	앞뒤 문장이 원인(이유)과 결과로 이어짐. → 그러므로, 따라서, 왜냐하면 등 ㉠ 인간은 시간 속의 존재이다. 그러므로 시간을 아껴 써야 한다.

문 19.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을 나고나.

제삿날 큰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을 보겠네.

저것 봐, 저것 봐,
네보담도 내보담도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 가는
소리 죽은 가을 강을 처음 보겠네.

- 박재삼, 「울음이 타는 가을 강」 -

- ①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군.
- ② 첫사랑과 관련된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군.
- ③ 대조적 속성을 지닌 소재를 통해 정서를 부각하고 있군.
- ④ 전통적 어조를 사용해 예스러운 정감을 살리고 있군.

정답 ②

[해설] 이 시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된 시어는 2연의 “저것 봐, 저것 봐”와, 2연과 3연의 끝에 나타난 ‘보겠네’ 정도이다. 이 시어들은 운율감을 형성하는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이를 첫사랑과 관련된 시어로 해석할 수는 없다.

[오답연구]

- ①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이라는 표현에서 ‘강’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울음’이라는 청각적 이미지로 전이하여 표현하고 있으므로,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시상을 전개한다는 감상은 적절하다.
- ③ 2연에서 ‘큰집에 모이는 불빛’과 ‘해질녘 가을 강’이 대조적 이미지로 제시되어 이를 통해 ‘울음’이라는 서러움의 정서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대조적 속성을 지닌 소재를 통해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다.
- ④ ‘~고나, ~것네와 같은 종결 어미는 옛말에 쓰였던 표현이므로, 전통적 어조를 사용해 예스러운 정감을 살리고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다.

■ 참고 - <박재삼, 울음이 타는 가을 강>

[해제] 이 시는 화자가 제삿날을 맞아 큰집을 찾아가다가 저녁노을을 배경으로 하는 강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상이 전개된다. 구어체의 문체를 통해 운율감을 획득하면서 화자의 내면의 정서와 조율을 이루고 있다. ‘울음이 타는’이라는 공감각적 표현을 통해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과 함께 소멸의 이미지가 갖는 슬픔(한)을 표출하고 있다.

[주제] 인생의 유한성과 한(恨)

문 2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길동이 “형님께서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내일 소제(小弟)를 잡아 보내 시되, 장교 중에 부모와 처자 없는 자를 가리어 소제를 호송하시면 좋은 묘책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감사가 그 뜻을 알고자 하나 길동이 대답을 아니 하니, 감사가 그 생각을 알지 못해도 호송원을 그 말과 같이 뽑아 길동을 호송해 한양으로 올려 보냈다.

조정에서 길동이 잡혀 온다는 말을 듣고 훈련도감의 포수 수백을 남대문에 매복시키고는, “길동이 문 안에 들어오거든 일시에 총을 쏘아 잡으라.” 하고 명했다.

이때에 길동이 풍우같이 잡혀 오지만 어찌 그 기미를 모르리오. 동작 나무를 건너며 ‘비 우(雨)’ 자 셋을 써 공중에 날리고 왔다. 길동이 남대문 안에 드니 좌우의 포수가 일시에 총을 쏘았지만 총구에 물이 가득하여 할 수 없이 계획을 이루지 못했다.

길동이 대궐 문 밖에 다다라 자기를 잡아온 장교를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날 호송하여 이곳까지 왔으니 문죄 당해 죽지는 아니하리라.” 하고, 수레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갔다. 오군영(五軍營)의 기병들이 말을 달려 길동을 쏘려 했으나 말을 아무리 채찍질해 문들 길동의 축지하는 법을 어찌 당하라.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이 그 신기한 수단을 헤아릴 수 없더라.

- ① 서술자가 길동의 장면 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 ② 호송하는 장교를 배려하는 길동의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 ③ 비현실적 요소를 도입하여 길동의 남다름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길동이 수레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정답 ④

[해설] 세 번째 문단에 제시된 “이때에 길동이 풍우같이 잡혀 오지만”을 통해 길동이 ‘탈출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잡혀 오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수레에서 탈출하는 모습은 네 번째 문단 “수레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갔다.”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비유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수레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오답연구]

- ① 네 번째 문단의 “길동의 축지하는 법을 어찌 당하라.”와 “백성들이 그 신기한 수단을 헤아릴 수 없더라.”에서 서술자가 장면 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네 번째 문단의 “너희는 날 호송하여 이곳까지 왔으니 문죄 당해 죽지는 아니하리라.”에서 호송하는 장교를 배려하는 길동의 면모를 알 수 있다.
- ③ 세 번째 문단의 “비 우(雨) 자 셋을 써 공중에 날리고 왔다.”와 “좌우의 포수가 일시에 총을 쏘았지만 총구에 물이 가득하여~”, 네 번째 문단의 “길동의 축지하는 법을 어찌 당하라.” 등에서 비현실적 요소를 도입하여 길동의 남다름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참고 - <허균, 홍길동전>

[해제] 이 작품은 부정적인 사회 현실에 대항하여 개혁 의지를 지닌 길동을 주인공으로 한 영웅 소설이다. 서자로 태어난 길동은 자신의 신분적인 한계를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고 현실에 저항하며 울도국이라는 이상 국가를 건설한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당대 조선의 모순된 사회 구조를 비판하고자 했다.

[주제] 적서 차별 철폐와 인간 평등